묵직한 수묵화와 청아한 클래식의 교감

조방원 작 '월하'

광주시립미술관 27일 '아산 조방원 그림 속에 비친 선율' 연주회

피아노 조현영·첼로 윤소희씨
공연장 아닌 그림 걸린 전시장서
'청아'·'고요' 등 5개 키워드
베토벤 '폭풍' 등 들려줘

조현영

윤소희

그의 그림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고요해진다. 화려한 색감 대신 먹의 농담만으로 표현해낸 풍경들은 담백하다. 때론 과감한 생략이 더 많은 감정을 갖게 해주고, 간결하고 단호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들에선 기개도 느껴진다. 달빛 아래 울창한 나무들이 인상적인 '월은'(月隱), 은은함과 강인함이 함께 느껴지는 '연우(煙雨), 고기잡이하는 소년들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먹의 향연이 잊히지 않는 '묵우'(墨雨)까지.

20일 광주시립미술관 1·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아산(雅山) 조방원-나그네를 기다리는 그 어느 산 속의 집으로'(8월15일까지) 전에 다녀왔다. "동양화가들이 쓰고 있는 흑색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버리는 색이다. 절망한 사나이가 암야행로를 가듯이, 흑색을 쓰고 있는 동양화는 그 절망을 뚫고 간다." 전시장에 걸린 그의 말처럼 '이 시대 남종화의 마지막 대가' 조방원(1926~2014) 선생의 작품에서 만난 '흑색'은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작품 100점과 선생이 쓰던 묵과 벼루, 육필 노트 등 유품들을 만날 수 있다. 선생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도 마련해 두었고, 영상에서는 "예술이란 진짜 내 마음이 바깥으로 노출 되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 쌓인 걸 그대로 갖다가 피를 토하듯 그림에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산'의 그림을 음악으로 그려낸다면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27일 오후 7시 특별한 연주회 '아산 조방원 그림 속에 비친 선율'을 기획했다. 미술관 로비가 아닌, 그림이 걸린 바로 그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피아노와 첼로 선율이 전시장을 감싼다.

연주회를 기획한 이는 '피아노 토크 콘서트'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조현영씨다. 지난 6월말 음악회 제안을 받고 서울에서 내려와 전시를 관람한 조씨는 그 때 느꼈던 '날 것'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 '청아', '고요' 등 다섯 개의 키워드로 연주 레퍼토리를 정했고 첼리스트 윤소희씨와 함께 음악을 연주한다.

'청아'에서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와 변주 1'을 연주한다. 두번째 장 '시대 정신에서 비롯된 예술적 방황'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폭풍' 3악장을 들려주며 '고요'에서는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을 들려준다. 또 '밤과 새벽 사이'에서는 쇼팽 '녹턴 작품 9-2'와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 나그네를 기다리는 산 속의 아침'에서는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중 '아침의 기분'과 '솔베이그의 노래'를 연주한다. 마지막 '삶 저 너머'를 장식하는 곡은 '넬라 판타지아'다.

"음악의 경우 작곡가가 곡을 만들면 연주자를 매개로 그 곡이 사람들과 만나지만 그림은 직접적으로 관객들과 맞딱드리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산 선생의 작품을 보면서 청아하고 맑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술가 정신이 투철하고 예술가적 사명감도 높으신 분이라는 말을 학예사분께 들었는데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시 하셨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입신양명보다는 제자 키우는 일에 정성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후대의 예술가인 저도 따르고 싶은 롤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라이프치히 음대 최고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친 조씨는 현재 '아트 앤 소울' 대표를 맡아 클래식 대중화 관련 연주회를 열고 있다. 역시 라이프치히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윤씨는 모나무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랑 현악 4중주단으로 활동중이다.

첼로와 피아노 소리가 울리는 전시장에서 감상하는 '아산'의 작품은 분명 또 다른 감동을 전할 것같다. 여유를 갖고 전시장에 도착, 전시회를 찬찬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미술관 2층에서는 6·10 항쟁 30주년 기념전 '전정호, 이상호-응답하라 1987'전이, 로비에서는 '부채그림전'도 열린다. 무료 관람. 문의 062-613-7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경자 차녀 "미인도는 명백한 위작"

위작 입증 '천경자 코드' 펴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미인도'는 또다시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술사학자인 클리프 키에포 미국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자신의 남편인 문범강 조지타운대 교수와 함께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펴냈다.

이들은 1977년작으로 알려진 '미인도'와 천 화백이 같은 해 그린 '나비와 여인의 초상', '수녀 테레사',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별에서 온 여인', '멀리서 온 여인' 등 작품 5점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경자 코드' 출간 간담회에서 "코드는 은밀한 내용을 암시하는 기호이자 비밀을 푸는 열쇠"라며 "'미인도'에는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에포 석좌교수의 감정서를 공개하면서 "'미인도'는 짧은 시간에 어머니의 화풍을 흉내낸 허술하고 조악한 작품"이라며 "허술한 그림 하나가 작가를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여러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갔다"고 성토했다.

김 교수는 조사 결과, '미인도'는 숟가락을 비롯해 홍채, 인중, 입술, 스케치 선 등 5가지 '코드'를 통해 위작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 화백은 여인상의 특정 부위를 숟가락으로 비비고 문지른 뚜렷한 흔적을 남겼지만, '미인도'에는 숟가락으로 문지른 흔적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화백의 다른 그림에는 작은 홍채 속에 긁고 파들어 가듯 표현한 확연한 흔적이 있지만, 미인도는 홍채 안이 텅 비어 있다"며 "미인도에만 인중이 있는 점도 이상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광주문화재단 내일 금남공원 야외무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6시 광주시 금남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2017정율성음악축제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6회차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소프라노 노선진·이성희·김순미, 베이스 장문석 그리고 뚜띠앙상블이 출연해 '연안송', '연수요', '뗏목가', '밀밭의 여인', '아, 수려한 풍경이여!' 등 정율성의 음악을 선보인다.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하며 날씨가 더워지는 7~8월 공연 시작 시간을 오후 6시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연 일정 및 출연진은 정율성음악축제 홈페이지(jysfestival.kr)에서 확인가능하다. 오는 7월 22일, 8월 12일은 금남로 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이 되며, 8월 26일은 광주성악콩쿠르 결선이 열리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2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어린이 뮤지컬 '홍길동'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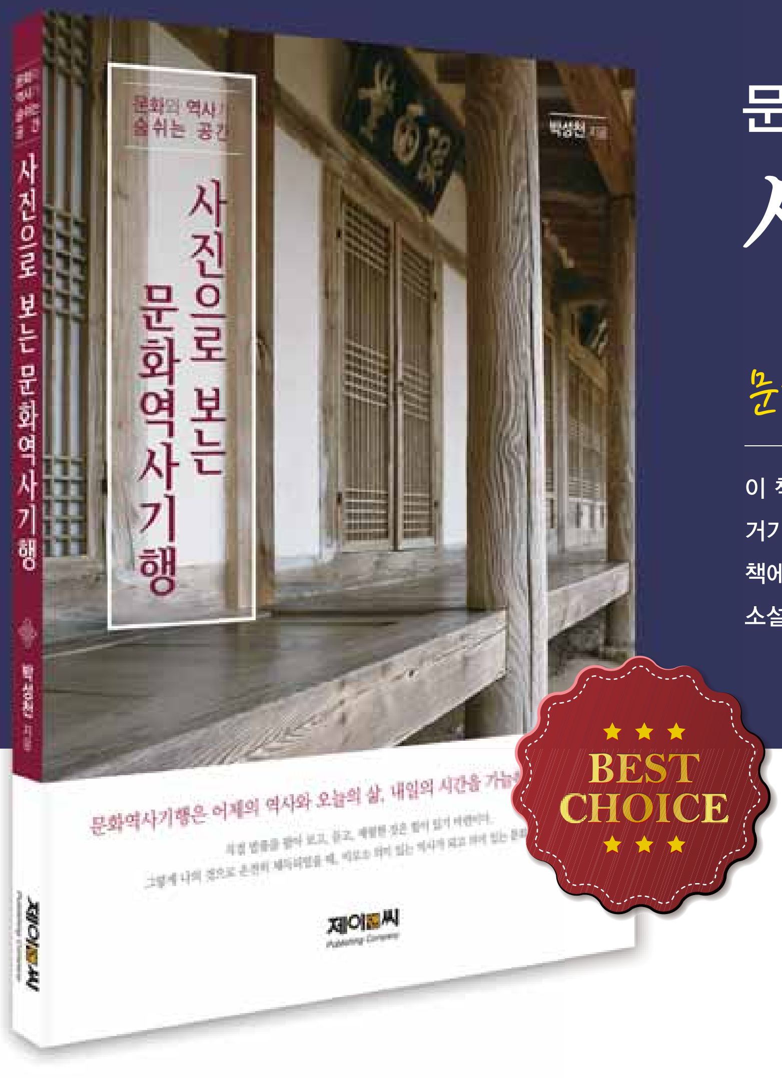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을 위해 22일(오후 4시) 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태권도 뮤지컬 '홍길동'을 상연한다.

최초 한글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은 서자로 태어난 주인공이 적폐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JUMP'와 '난타' 연기자들이 모여 태권도 뮤지컬 '홍길동'으로 새롭게 각색해 재탄생시켰다.

이번 공연에서는 태권도의 화려한 군무 동작을 시작으로 연기자들이 아크로바틱, 검술, 봉술 등의 액션을 선보인다. 아울러 화려한 영상과 비눗방울 등의 마술과 같은 무대 효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19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062-570-7025.

/박성천기자 skypark@



www.jncbms.co.kr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공간

사진으로 보는 문화역사기행

문화역사기행은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가늠하는 기회이다.

이 책에 수록된 문화역사의 공간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역사 시간에 들었거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봤음 직한 장소들이다.
거기에는 절절한 아픔과 통한의 역사가 스며있기도 했고, 더러는 우리 문화의 진미(眞美)가 오롯이 깃들어 있기도 했다.
책에는 기자의 시각, 작가적 상상력, 인문학자의 사유가 투영돼 있어 역사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가 특유의 감성적 문체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본 현장감이 겹쳐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BEST CHOICE

"직접 발품을 팔아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는 힘이 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의미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광주일보 기자인 저자는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
2000년 전남일보 신춘 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2006년 소설 시대 신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인문학자이다.

저자 박성천 | 정가 18,000원 | 224쪽 | 크라운판 | 소프트 | 올컬러 | 제이앤씨 출판사